

목표달리다

군산, 초등학생 기초수영교실

군산지역 초등학생 기초수영교실이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20개 초등학교 3학년 884명을 대상으로 2016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군산시 보조금 등 총 4000만원을 확보해 운영한다

수영교실은 군산국민체육센터 월명수영장, 시타수영장에서 진행된다

월명수영장은 문화·군산·당북·문창·옥봉·화현초교 372명, 시타수영장은 경포·남·동·수송·미룡초교 196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센터는 내홍초, 아리울초, 중앙초, 발산초, 서수초, 슬산초, 옥구초, 옥산초, 새만금초 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별 학급당 1일 1시간씩 5회, 10회, 15회 등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운영되며 교육과정인 체육(수영)과 연계해 이론 및 실기를 병행 지도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 공연 참여 보육기관 모집

군산시는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 공연에 참여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4세~7세 미취학 어린이이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30분과 12시30분에 2회에 걸쳐 총 200명을 대상으로 군산시 민예술회관(구, 유일극장)에서 개최된다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참여 아동수 인솔교사, 안전보험가입 등을 기재하여 전자우편(paradisi974@kora.kr)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 행복과(454-417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개인위생관리 당부

군산시보건소는 급격한 기온상승과 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등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병한 콜레라의 경우 복통을 동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설사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증상, 저혈당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콜레라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 제공,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음식물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건강검진과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팜, 추석맞이 이벤트 실시

군산시 농수산특산물소매점 '군산팜'에서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8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군산팜에서는 꽃게장, 박대, 조미김, 한과 등 추석 선물 상품을 5~10%할인해 판매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최고 구매액 5명, 행운의 번호 구매액 12명, 우수 이용후기 작성 고객 20명 등 총 37명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군산시장 1층 로비에 추석 명절상품을 전시·주문판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063-454-3043) 또는 군산팜(063-467-3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근대역사거리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힘써야”

시민·관광객 “특정 업소 먹거리 치중 한번 방문 후 다시 오고 싶지 않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었다” 군산 근대역사거리를 찾은 한 관광객의 목소리다. 최근 군산근대역사거리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우리의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군산 근대역사거리 일원에서 치러진 군산야행(夜行)에 8만여 명이 달하는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성공적인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군산야행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근대역사거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기간을 제외한 상시 관광객 유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는 주중 평균 2000여명, 주말은 5500여명의 관광객이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역사거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윈도심을 찾는 관광객이 주말과 각종 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근대역사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중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38·남) 씨는 “근대역사거리 관광상품이 한계를 보이며 최근 들어 관광객이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를 겪고 있다”면서 “주중에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장사를 계속 해야 할지 그만 두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한옥 하나로 시작해 한복체험과 먹거리를 또 하나의 인기상품으로 이끌어내면서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산 근대역사거리는 일박식 가옥 몇 채와 고우당 외에는 별다른 특색이 없으며, 먹거리 또한 한옥마을과 크게 비교된다

또한 근대박물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 한복과 같은 화려함이나 특색이 없다보니 관광객들로 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에 개량된 근대박물관을 개발해 한복과 일본전통의상에 뒤지지 않는 근

대복 체험행사를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 김선영(27·여) 씨는 “한옥 마을을 두 번 세 번 다시 찾는 이유 중 하나는 각종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군산은 특정 업소의 먹거리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한번 방문 후 다시 오고 싶을 정도의 상품성은 없다”고 말했다

근대역사거리와 근대역사박물관 및 벨트화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광산업 전문가는 “근대역사거리 근대기념의 회랑구조물 등을 설치해 주변 경관에도 어울리고, 눈·비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시민은 “00년을 곱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 해도 이들의 입맛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관광객이 떠나는 건 채 하루도 걸리지 않으며, 한번 떠난 관광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위생불량 오명 보도’에 군산시 “이건 잘못된 것”

자료 출처 조사 결과 “식품안전정보포털 수년째 같은 내용만 표시돼” 비판

최근 한 언론에서 위생불량 음식점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군산시가 “잘못된 기사”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군산지역이 근대역사문화의 메카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최대의 위생불량 도시라는 오명을 입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자 오명양지는 위생불량 음식점 비율이 군산시가 최고며 경주의 60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군산시는 기사자료 출처를 조사한 결과 “식품안전정보포털에 있는 내용으로 이 사이트는 소비자 및 식품업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수년째 같은

내용만 표시되는 영터리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인용됐고 이를 식품안전처 대변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군산시 음식점 지도점검률이 0.1%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 “2014년에는 총 음식점 4578개소 중 1557개소로 점검으로 33%, 2015년에는 4721개소 중 4085개소로 86.5%의 점검을 했다”며 “0.1%의 지도점검을 한 해 동안 4개소의 업체만 점검한 꼴인데 어떻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생행정처분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군산시는 “잠재되어 있는 위생과 “식품안전정보포털에 있는 내용으로 이 사이트는 소비자 및 식품업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수년째 같은

목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식중독 청정지역임을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시민의 위생안전을 위한 언론보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확인 없는 악의적인 추가보도로 인한 군산시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피력했다

군산시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은 위생 점검을 통해 최선의 시민안전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뿐인데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위생불량 도시로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위생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어린이집 등 6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

익산시가 8월 어린이집 등 6개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총 6개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이달 모든 시설에 대한 준공을 마쳤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집수시설에 모아서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텃밭 또는 정원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익산에서 유치원 등에 설치한 6개의 시설은 의무대상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생활주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일깨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다. 저장용량은 각각 2㎡로써 시설비는 개소당 500만원한도에서 91%는 도·시비를 지원하고 약9%만 자부담금을 투입하여 설치했다

시는 지난해 같은 시범사업으로 설

치한 5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비가 올 때 모아두었던 빗물은 비가 그친 후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 시 손씻기나 신발에 묻은 모래, 흙을 간단히 씻고 실내에 들어오거나, 잔디밭이나 텃밭에 물을 주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완공한 빗물이용시설도 소규모이지만 생활주변에서 그 활용도와 이용방법 등을 주민들이 이해함으로써 제반확대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정현을 시장 주요 공약 소통·공감 행사 ‘생생공감 현장감담회’ 개최

익산시가 정현을 시장의 주요 공약인 소통과 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생생공감 현장감담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여름방학기간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L모(20)씨는 “종합민원과로 배정되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서막사막했으나 주변 직원들이 잘 챙겨줘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쉬운 일은 없다는 생각을 했고, 4주간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몇몇 학생들은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펼쳐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현을 시장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내년 초에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공감 현장감담회’는 매일 낮에 주 토요일에 열리는 시민열린광장을 포함해 매달 한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나포면 ‘한여름밤의 열린음악회’ 개최

군산시 나포면은 지난 28일 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유치 기원 ‘한여름밤의 열린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시키는 한편,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고, 연일 지속된 가뭄 및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가수, 발리댄스, 국악공연팀들의 재능기부와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색소폰 동아리, 명민으로 구성된 원더걸스팀, 명민 장기자랑으로 나포면민들의 흥겨운 한바탕 잔치가 이뤄졌다

공연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바로알기 및 참여 홍보 추진과 함께 사업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은 노랑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명민 전체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 추진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매일 넷째 주토요일 시민 열린광장 운영

익산시가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 열린광장이 지난 2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시는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후 매일 넷째 주 토요일에 시민 열린광장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시장과 직접 면담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해와 공헌의 장으로 운영된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50여명의 시민들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이날 건물 화장실 개방을 비롯해 KTX를 이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 시민 편의 사업 진행시 시민들의 의견 청취 필요 등을 제언했다

정현을 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열린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시장에 반영해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무인역 명예역장 모집

코레일 전북본부는 무인역(무배치간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역사 관리를 위해 호남선의 지역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 2개역(부용역, 노량역)을 선정하여 일민을 대상으로 한 명예역장을 뽑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무인역 명예역장은 철도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도내 역에 비치된 응모신청서를 작성 e-mail(chochi@korail.com)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되며, 일정교육 수료 후 명예역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명예역장은 무보수 명예직(임기 1년, 최장 3년)으로 활동하게 되며, 코레일(전북본부에서는 각 중 주행사 및 신규상품 판매 투어 초청, 철도관련 주요 뉴스일간지, 방송) 클리핑과 자신 입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명예역장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줄 계획이다

정영철 전북본부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고향역을 만들고자 이번 명예역장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철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명예역장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